

1970년대 한국 경공업 여성노동자의 신체성에 관한 연구*

김 주 희**

I. 들어가는 글	V. 나가는 글
II. 1970년대 한국의 사회적 배경	참고문헌
III. 반복적 움직임과 여공의 신체	Abstract
IV. 일탈적 움직임과 여공의 신체	

I. 들어가는 글

이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경공업 분야에 종사한 여성노동자들의 신체성(corporeality)을 통해 당시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 몸 담론을 논의하는 것에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 안에서 여성의 신체가 가사와 육아 노동을 담당했던 것에 반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여성의 몸은 산업 노동자로 그 역할과 기능이 급격히 변모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를 주목하고 있다. 박정희정권 주도 하에 수출 산업화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방직, 방적 산업은 경공업으로 발전되어 봉제, 시다, 피혁 제조 등과 같은 직업으로 활성화된다. 이러한 저임금 노동집약적 하위 직업은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배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460).

또한 2013 Korea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Spring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박사, sunjang33@gmail.com

경 속에서 여공들의 신체는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지니지만, 그 일상적 움직임 안에는 계급, 자본, 젠더, 지역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한국학과 등과 같은 인문 사회계열에서 먼저 연구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상을 재고하거나 민주 노동 행위의 초석을 조망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여성 노동자의 '신체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특히 경공업 여성 노동자의 생활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이 '반복성'과 '일탈성'으로 집약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는 사례들의 신체 활동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몸을 근간으로 연구하는 무용학에서는 주로 극장 무대에서의 신체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져 왔지만, 최근 몸 담론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자는 노동자를 재현하는 '예술가의 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자의 몸'을 연구하는 것이 무용학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신체에 관한 전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체를 보다 깊게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논문, 평문, 잡지, 신문기사와 같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특히 그 시대상이 미시적인 방식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여성수기와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참고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과 당시 시대성을 재현한 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그림 등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 할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성을 논의 하는데 있어 참고할 문화이론 사유는 다음과 같다. '훈육된 신체'와 '경쟁하는 신체'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에서 권력적 체계가 효과적인 훈육방법으로 선택한 '시선(gaze)'에 관한 논점을 참고 하도록 하겠다. 또한 '해체된 신체'와 '저항하는 신체'를 구체적으로 논거하기 위해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¹⁾의 '카니발(carnival) 이론'에서 나타나는 탈구조성과 해체(deconstruction)

1)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 1895-1975)은 서구 문화이론 학자에 비해 비교적 덜 조명 받은 러시아 학자이다. 1980년 프랑스 페미니스트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논문에서 소개되면서 그의 학문적 가치는 전 세계로 알려지기

사유에 근거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하위주체인 여성 노동자들의 논지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²⁾이 극빈하고 영향력 없는 노동자, 여성, 식민지국가의 여성 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서발턴(subaltern)’ 이론을 통해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다.

II. 1970년대 한국의 사회적 배경

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197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은 8.15해방 이후 남·북으로 나뉜 분단의 아픔과 갑작스러운 6.25 전쟁의 충격을 치유하지도 못한 채 정치적 혼란기를 겪게 된다. 게다가 36년간의 일본의 지배는 뿌리 깊게 국민 정서를 패배자로 각인 시켰으며, 순식간에 폐쇄하게 만든 전쟁의 상흔은 나라를 깊은 가난 속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은 여러 문화들로 인해 혼재, 변용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박정희는 5·16군사정변을 주도하여 1963년 제5대 대통령이 된다.

시작되었다. 바흐친이 성장한 지역은 여러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혼종되는 오렐이었다. 언어의 이질성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온 탓에 그는 언어에 깊이 있는 의미구조를 파악하고, 비공식적인 민중문화 속에 내재된 탈구조주의적 언어를 살펴보는 저작들을 남겼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지식인들로 그룹을 구성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하며 서로의 이론과 선진 지식을 공유한 바흐친은 반스탈린적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된다. 그의 토론 친구들이었던 톨스토이와 고리키 등의 구명운동 덕분에 감형을 받았지만, 카자흐 지방으로 추방당해 1975년 사망하고 만다. 미하일 바흐찐(1965),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 최건영(역)(서울: 아카넷, 2001), pp. 753-768.

- 2)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1942-)은 인도 캘커타에서 태어나 캘커타 대학에서 영문학 학사, 미국 코넬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컬럼비아 대학 특별 교수와 비교문화 사회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그녀는 서구의 철학, 문학, 역사,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연구로 실행하면서 성, 계급, 인종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포스트 식민주의적 산물이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 외(2010),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역)(서울: 그린비, 2013), p. 533.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단행하였고 국가발전의 기틀 마련에 주력하였다. 특히 1970년대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으로 대통령 출마의 길을 연 후, 1971년 4월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시기이다. 다음 해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유신체제가 시작되었다. 유신체제에서는 국가 경제 신뢰를 골자로 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반공주의강화, 부패근절, 검열기관 등을 통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발전하고자 하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국민경제발전 계획으로 인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수출의 증가를 보이고,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70년대 들어서도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선성장후분배'와 '수출지상주의' 정책을 연장하여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 주도적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저임금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³⁾ 이로 인해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성장률은 연간 20%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도시 노동자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71년 12월 27일에 시행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업체 뿐 만 아니라 국내 기업 전체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1972년 3월 3일 시달된 '국가비상사태하의 단체교섭권 등 조정업무 처리 요령'에 의해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은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자율적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⁴⁾ 정치, 경제 뿐 만 아니라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당시에는 야간 통행금지와 같은 국민통제수단 등이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는 원래 1945년 9월 미국의 군정사령부에서 전쟁으로 인한 빈곤과 혼란 속에서 유행하는 범죄를 줄이고, 질서를 잡기 위해 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대정서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시행은 국민의 야간생활권과 신체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 등으로 작용됨으로써 많은 비판과 반발을 일으켰다.

3) 이옥지(2001),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서울: 한울), p. 122.

4) 앞의 책, p. 129.

또한 1967년부터 ‘건전한 명랑 사회 건설’과 ‘사회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0년대에는 대중문화를 퇴폐적이고 저속한 문화로 간주하여 엄격한 검열을 하였으며, 장발금지나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 고고장 단속 등의 ‘퇴폐풍조 단속령’이 시행되었다.⁵⁾ 실질적으로 당시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의 기사를 보면 ‘수도서울 명랑화’라는 기치 아래에 1970년 1월 한 달 동안 서울시경이 단속한 사람은 2만명이 넘었다.⁶⁾ 이 중 즉결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1만 5천으로 기록되며, 그 명목으로는 보행위반, 통행금지 위반, 음주 추행, 노상 방뇨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도덕적인 국가 질서 확립’을 위해 1966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윤리위원회는 1976년 5월에 한국공연윤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문화예술을 억압하였다. 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건전한 공연 풍토 확립과 질서 및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적절한 노래를 검열하였고, 한국전통 민족 가이드 정립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청년문화 및 방송, 영화 등을 단속하였다.

Ⅲ. 반복적 움직임과 여공의 신체

이번 장에서는 국민들의 절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경제개발계획 안에서 상대적 빈곤자였던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가 담지하고 있는 담론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여공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신체 검사와 면접, 필기, 달리기 등이 있었다.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있어 적합한 힘세고 건강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사한 여공들은 다양한 신체로 변모된다. 특히 그녀들의 신체적 움직임 특징 중 ‘반복성’은 ‘훈육된 신체’와 ‘경쟁하는 신체’, ‘소외된 신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5) 송은영(2011),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회』 32, pp. 208-209.

6) 앞의 책(2011), p. 209.

7) 김원(2006), 『여공1970』(서울: 이매진), p. 232.

1. 훈육된 신체

여성경공업노동자들이 작업장 안에서 겪는 노동은 힘과 근력이 요구되는 남성 노동자들과 달리 단순하지만 빠른 손놀림, 섬세한 주의와 끈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장시간동안 빠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규율과 통제로 훈육되는 군대의 군기와 흡사한 작업장의 기강이 있었음을 정명자의 구술을 통해 알 수 있다.⁸⁾

“우리가 막상 일을 하면 정말 기계예요. 1분에 140보씩 움직이려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되거든요. 1분에 140보씩 움직이고,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호루라기 ‘호’ 불면 화들짝 놀라서 쳐다보았죠. 저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자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꿈에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⁹⁾

정명자의 증언과 동일하게 석정남의 수기에서도 보면 많은 기계들이 이상 없이 돌도록 살펴보려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1분에 140보를 기준으로 ‘걸음마 훈련’을 받았으며, 기계가 쉬지 않도록 ‘끊어진 실을 빨리 이어주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전한다.¹⁰⁾ 급격한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자동화 기계는 여성 노동자에게 ‘사람 잡는 기계’라고 불릴 정도였다. 끊임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기계 40-50개를 보다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심한 경우 옷에다가 오줌을 싸는 일도 있었다.¹¹⁾

신체의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연습과정을 통해 여공들의 신체는 공장 시스템에 적합한 유순한 신체로 전환되며, 스스로를 검열하는 동시에 훈육하게 된다. 반복적인 집중훈련과 계속되는 작업과정을 통해 습득된 익숙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의 흐름은 관리자의 호루라기 호각 소리에 따라 반응, 제어되는 자율

8) 앞의 책, p. 240.

9) 앞의 책, p. 242. 김원(2006)의 『여공1970』에서는 ‘1시간의 140보’로 되어 있으나 같은 책에서 인용한 석정남의 수기에서는 ‘1분의 140보’로 기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저자의 책에 오류가 있거나 정명자의 증언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분’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10) 앞의 책, p. 270.

11) 앞의 책, pp. 250-252.

성이 제거된 존재 즉, 기계와 같은 무감정의 신체가 되는 것이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에서 권력이 인간 속에 침투되어 그 권력이 생성 및 발전되는 전략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예로 레옹 포쎈(Leon Faucher)가 작성한 「파리 소년 감화원을 위한 규칙」 중 제 18조에 “첫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재소자들은 조용히 기상하여 옷을 입고, …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재소자는 침상에서 내려와 침구를 정돈한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아침기도를 하는 성당에 가도록 한다. 각 신호는 5분 간격으로 한다”로 기술되어 있다.¹²⁾ 시간과 신호를 통해 재소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신체로 길들이는 방식은 여공들이 호각 소리에 행동하고, 그로 인해 복종하는 신체로 변환되는 것과 같다.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유정숙은 “나와 함께 일하는 언니가 ‘6번 미싱사’ 여서 나는 ‘6번 시다’라고 불렀다…”라고 당시를 기술하고 있다.¹³⁾ 이름 대신에 맡고 있는 작업명이나 번호로 호명되면서 이들의 신체는 다시 한 번 규격화되고 기계화된다. 이러한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은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에서 재봉틀이 시끄럽게 돌아가는 소리와 이름 대신에 작업번호가 정신없이 호명되는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작업환경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영화에는 화장실에 가는 여공에게 화를 내는 작업반장의 모습과 오랜 노동으로 인해 피곤한 여공에게 “니 그러다가 손가락 병신된다잉”라고 호되게 주의를 주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15세 미싱사 최순희의 일기에는 “20시간씩 철야 작업을 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피로제와 타이밍제를 마구 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며칠씩 집에 보내지 않는 것도 다반사였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살피면서 가야하고, 조금만 늦게 들어올 때에는 어색하기까지 하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신체에 극단적인 훈육이 가해지는 상황을 알 수 있다.¹⁴⁾

푸코는 제레미 벤담(J. Bentham)이 설계한 판옵티콘(panopticon)을 예로 들

12) 미셸푸코(1975),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오생근(역)(서울: 나남, 2003), p. 27.

13) 유정숙 외9(2011), 『나, 여성 노동자』(서울: 그린비), p. 27.

14) 이정희(2003), 훈육되는 몸, 저항하는 몸-1980년대 초반 여성 노동 수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p. 170.

면서 건물의 구조 안에서의 시선(바라봄-보임)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과 혼육의 효과에 대해 지적한다. 판옵티콘은 ‘한 눈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감시 형태로 원형건물 중심에 높은 탑이 있고, 그 안에는 감시자가 위치해 있는 구조이다.’¹⁵⁾ 탑 보다 낮은 위치에는 독방들이 나뉘져 있으며, 이 독방에는 바깥쪽 창문과 안쪽 창문이 있다. 바깥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역광선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죄수는 감시자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없지만, 감시자는 죄수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감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 환경은 무력적인 폭력이나 제재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며, 죄수들은 언제 어디서 감시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체를 통제하며 순종하는 신체로 고착화된다. 1970년대 경공업 공장의 경우 기계의 높이에 맞춰 일하는 여공들과 보다 높은 시선의 위치에서 관리하는 감독관의 구조는 판옵티콘의 구조와 흡사하며 최순희가 화장실을 가면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무안한 느낌을 통해 스스로를 검열하는 행동은 판옵티콘의 죄수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2. 경쟁하는 신체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초인적 정신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공들의 신체는 경쟁하는 신체로 관리된다. 1분에 15개의 실 잇기 시험이나 기계의 배치에 맞추는 걸음마 시험은 경쟁을 유도하여 최대의 작업 효율을 끌어내고, 상급자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생산 집약적인 형태를 구축하게 만들어 준다. 석정남의 수기를 보면 당시의 상황과 당시 여공들이 느꼈던 감정을 파악 할 수 있다.

“미싱일을 하니까 시다일 보다 훨씬 재미있다.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가 신나게 들린다. 이 공장안의 여러 시다 애들이 모두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진다... 나와 서로 겨루던 애들이 저만치 뒤로 떨어뜨린 것이다. 내가 이겼다. 난 이제 이 길로 미싱사가 된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미싱사!”¹⁶⁾

15) 미셸푸코(1975), pp. 309-312.

16) 김원(2006), p. 313.

동료들 보다 빠르게 많은 작업 결과물을 낸 성과의 보상으로 여공들은 신분계급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이들의 신분은 맡는 업무에 따라서도 마도메(작업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공정), 시다(미싱사 보조), 시아게(뒷마무리하는 사람), 오바로꾸(재단의 천의 절단선 마무리 작업), 오야(두목, 상급자) 등과 같이 나뉘지만 계급 마다 그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는 다른 색의 옷을 입음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아래 석정남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동료 간의 경쟁은 내부 균열을 통해 노동자 집단 간의 조합설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날마다 어느 시간을 정해가지고 테스트 점수를 매기는 거지. 개인당 모두 1분에 실을 몇 번 묶고 몇 개를 묶을 수 있으며, 작업처리능력, 우리 같은 경쟁을 붙여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1분에 몇 을 뽑았다 매일 기록을 체크하는, 서로 간에 경쟁을 부추겨 가고, 그러고 나니까 현장이 살벌해지더라니까...”¹⁷⁾

뿐만 아니라 경쟁은 상급자에 대한 지시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충성도를 고취시킨다. 원풍모방의 이옥순은 “세째줄 짜리 반장 언니가 지나가면 작업장은 퐁퐁 언 분위기였다”라고 회상한다.¹⁸⁾ 그녀의 말에서 작업장 반장에게 부여된 지위가 상당했으며, 그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가 경직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은 생산량의 성과와 함께 권력이 지닌 계급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충성경쟁을 통해 내부 질서를 확립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유점례의 구술을 보면 여공들의 신체는 일터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해야 하는 기술사에서 계속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원보다 좁은 공간의 기숙사 방은 눕는 몸 방향을 같게 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세면장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들은 경쟁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의 신체는 경쟁적 신체로 끊임없이 단련되고 있는 것이다.

“...잠을 자는데, 요, 요 가운데만 이렇게 통로가 비어있고 머리가 다 이쪽으로

17) 앞의 책, p. 305.

18) 앞의 책, pp. 306-307.

로 오게 해갖고 이렇게 주루룩,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십명이, 한 방이. ... 그래갖고 그 인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세면실이라고 그러나? 거기를 가면 일찍 못 가면 자리 차지를, 수도꼭지 차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여튼 뭐 바글바글, 바글바글 해. ...씻는데도 전쟁, 밥 먹는 것도 전쟁, 잠자는 것도 전쟁이야... 하여튼 지옥 같았어...¹⁹⁾

푸코는 시험이란 제도가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라고 말한다.²⁰⁾ 여기서 '규격화는 바로 시선이자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감시'인 것이다.²¹⁾ 여공들의 작업은 시험을 통해 점점 통합성을 갖추게 되고, 그 일체성에 합당한지에 여부를 가리는 권한을 통해 자연스럽게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쟁은 신체에 시간의 의미를 주입함으로써 인간의 신체 리듬을 가속화 시켰으며, 이러한 산업화시대 단면적인 모습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빨리빨리 문화'의 전형을 양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소외된 신체

1970년대 가장 히트한 영화 중 하나인 「영자의 전성시대」(1975)는 한 여성의 삶을 시대상과 함께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인공 영자가 돈을 벌기 위해 부자집 가정부로 취직을 하지만 주인아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억울하게 쫓겨난다. 살길이 막막한 영자는 봉제공장과 버스 안내양 일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팔 하나를 잃게 된다. 결국 그녀는 윤락여성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본고에서 이 영화에 주목한 이유는 1970년대의 가난한 집안의 여성이 직업을 선택 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빈농의 쓸모없는 딸로 태어나 입 하나 줄이고, 집안

19) 이종구 외14(2006),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서울: 한울), p. 153.

20) 미셸푸코(1975), p. 289.

21) 앞의 책, p. 289.

에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자 대도시로 상경한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가정부, 여공, 버스안내양 외에는 결정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제한되어 있었다. 상당수의 많은 여성들은 취업 연령에 미달되어 언니의 주민등록증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취직할 수 있었다.²²⁾ 이들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 가능 나이인 19살로 맞춰야 했으며, 공장에서 요구하는 키와 몸무게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해야 했다. 이러한 지



〈그림 1〉²³⁾

원 조건에 맞지 않거나 소개자가 없는 경우 탈락해서 재수를 하고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관리자 집에서 1년간 무료로 식모살이를 하다가 들어 온 경우도 있었다.²⁴⁾

위조한 신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면서 이들의 신체는 섹슈얼리티까지도 제거된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어울리는 옷 보다는 장시간 일을 하는데 있어 편리한 험렁한 작업복을 입어야 했으며, 이들의 신체는 기계열로 인해 땀과 먼지에 뒤덮였다. 또한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장의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해 항상 질병에 노출되었음을 조화순의 구술에서 알 수 있다.

“숨에서 실을 빼내서 물레에서 돌려서 나중에 짜는 것까지 해요. 그 일에는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같은 온도예요.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먼지가 많아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 속눈썹에 하얀 솜 먼지가 붙어서 ... 공기가 항상 습하고요. ...목욕탕에 가면 막 긁어서 혈어가지고 사람들이 문둥이나면서 못 들어오게 한대...”²⁵⁾

문학평론가 스피락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서발턴’²⁶⁾을 이용

22) 이옥순(1990.3.3), 나 이제 주인이 되어. 『경향신문』, 제 10면.

23) 『영자의 전성시대』 포스터, http://image.cine21.com/cine21/poster/2005/0426/M0010004_01.jpg.

24) 김원(2006), pp. 238-239.

25) 앞의 책, pp. 252-253.

26) 그람시가 감옥에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로 이탈리아 남부 시골농민들의 비조직 집단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칭하기 위해 ‘서발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 의식이 없어 국가(권력)의 사상, 문화, 정치에 지배 받기 쉬웠다고 설명한다.

해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도전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지배계층의 계모니에 종속되거나 접근을 부인당한 그룹인 하위주체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더욱 극빈하고 영향력이 없는 노동자, 농민, 여성, 특히 식민지배 여성이 이에 속한다. 이 용어의 특징은 계층, 인종, 젠더까지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인데, 여공들의 생활상을 볼 때 서발턴으로 지칭해도 무방해 보인다.

‘반복성’과 ‘단순함’으로 부각되는 이들의 신체 움직임은 ‘공순이’라는 은어로 대상화된다. 이 말 속에는 가난과 무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하찮은 일이나 하는 부수적인 존재라는 어감이 깔려 있다. 또한 제약된 움직임을 요구하는 일로 인해 효율적인 몸으로 제도화됨과 동시에 무의식적 몸 언어를 지닌 박탈된 신체를 갖았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게다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은 배제된다. 1972년 당시 동일방직은 조합원의 90%이상이 여성이었지만, 조합 간부직은 거의 회사 쪽과 가까운 기술직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²⁷⁾ 여성 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보다는 공장에서 마련한 기숙사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별집’이라고도 불리는 기숙사는 달동네의 판자촌 지역 중심으로 마련되는데, 여공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쉼터나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장소가 아니다. 작업장에서의 검열은 숙소에서 마찬가지로 기숙사의 사감 같은 관리자가 몸수색, 외출금지, 시간통제 같은 감시를 받았다.²⁸⁾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는 도시적 형태가 성립됨에 따라 60-70년대 들어 여가 관련 지출이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여공들은 낮잠을 자거나 빨래를 하는 것이 주된 여가활동이 되면서 여가에서 마저 소외된다.²⁹⁾ 여가에서의 소외는 명절 연휴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여공들은 귀경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도시에 잔류할 수 밖에 없었으며, 관리자의 휴가 동안에는 기계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영화 관람이 전부였다. 그래서 명절

27) 이정희(2003), p. 172.

28) 김원(2004), 1970년대 ‘여공’의 문화: 민주노조 사업장의 기숙사와 소모임 문화를 중심으로, 『페니미즘 연구』 4, pp. 106-107.

29) 박해광(2004), 한국 산업노동자의 도시 경험, p. 33(이종구(2006), 앞의 책, p. 49 재인용).

때 영화를 보는 행위를 가리켜 ‘공순이나 하는 짓’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자신들의 처지와 동일한 조건들의 여공들은 동료애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결부되지 못했지만,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며, 연고가 없는 도심으로 나와 있으며, 기숙사와 작업장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장 동료들과 ‘자매애(sisterhood, female solidarity)’와 같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³⁰⁾ 자매애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논의하겠지만 이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이는 곧 저항적 신체로 돌음 할 수 있는 권력으로 변환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의 ‘저항하는 신체’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IV. 일탈적 움직임과 여공의 신체

1. 해체된 신체

1970년대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움직임 특성인 ‘일탈성’은 앞장의 ‘반복성’과는 대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반복된 훈련으로 인해 견고하게 규범화, 박제화된 이들의 신체가 풀어질 때는 여가시간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올 때이다. 1970년대



〈그림 2〉³¹⁾

는 트로트 가수들의 쇼 문화가 전성기를 이루던 시대였는데, 특히 남진과 나훈아의 대결구도는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여공들에게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과 남진의 「내 고향 목포」 등과 같은 노래 가사가 소외당하고, 고달픈 타지 생활에 위로가 되었으며, 대결구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³²⁾

30) 김원(2004), 앞의 책, pp. 102-103.

31) 나훈아와 남진, <http://cfil217.uf.daum.net/image/1353E93750A3112113B564>.

32) 김원(2006), 앞의 책, pp. 665-670.

여성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신체가 자유로워지는 시기는 회사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이다. 단합대회 혹은 야유회, 체육대회와 같은 집단 동원 문화는 사업주가 권장하고, 권력이 용인하는 시간과 동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체 향락의 개념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1970년대에 유행했던 트로트는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템포가 빠르게 변형되고, 여러 곡이 메들리로 묶여진 형태로 유포되면서 그 가락을 ‘뽕짝’이라고 칭하기 시작하게 된다.³³⁾ 여공들의 야유회 때 이런 뽕짝 메들리는 흥을 돋는데 필수가 되었다. 전 노동 운동가 최혜자는 “짧은 시간동안 최대한 많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소주를 병째 나발을 불고,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쳤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군을 통해 서양의 대중음악과 춤이 들어오기 시작되면서 50년대는 맘보춤 시작으로 하여 60년대는 로큰롤이나 트위스트 음악에 맞춰 추는 트위스트 춤이 유행을 했다. 60년대부터 각 가정에 TV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트위스트 김이 추는 트위스트는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고, 70년대에는 존 트라볼타(John Travolta)가 주연한 영화 「토요일밤의 열기」(1977)가 흥행하자 디스코가 유행을 하게 된다.³⁴⁾ 1970년대에는 춤을 흔하게 ‘고고’라고 칭해 ‘고고장’, ‘고고춤’이란 단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고고’의 원류가 일본에 들어 온 서양 춤이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미군들을 통해 들어 온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도 여전히 ‘고고(ゴ-ゴ-ゴ)’ 같은 단어의 형태가 남아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트위스트, 몽키, 스윘, 림보 등을 빠르고 역동적이게 추는 춤을 ‘고고(go-go)’로 칭하기도 했다.

1970년대는 허리를 중점적으로 자유롭게 흔들고 돌리는 고고춤이 전반적으로 유행을 했지만 여공들이 추는 춤은 이외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다른 형태를 띠는 요인은 관광버스 안 좁은 통로공간 안에서 춤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공들에

33) Sonminjung(2006), Regulating negotiating in t'ûrot'û, a korean popular song style, *Asian Music*, 37(1), pp. 51-74.

34) 이윤철(2005.5.14), 이윤철 TV 속 이야기 -추억의 댄스, 『MBC』.

게 허락된 자유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려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도 활용해야만 했다. 관광버스 안에서 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흔들리는 차안에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다리 간격을 적당히 벌리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 발 스텝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하체는 엉덩이 위주로 움직여지며, 상체와 팔 움직임은 중심으로 움직임이 만들어 진다. 이들이 주된 움직임은 어깨와 복부의 트위스트(twist), 무릎 바운스(bounce)를 이용한 복부 흔들림(shake), 골반과 상체의 분리(isolation), 엉덩이 흔들기(vibration), 좌우로 엉덩이 밀어내기(push), 팔을 쭉 뻗지 못한 체 구부려 위 아래로 방향으로 올리고 내리기(up and down)를 반복하기 등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통해 규정화된 범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여공의 몸은 해체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좁은 관광버스 통로에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서로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데 있어 공간적 제약과 관광버스는 일탈의 욕구를 분출하는 유일한 해방공간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이들이 추는 춤은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이지 않은 춤이라 할 수 있다.

바흐친은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1965)에서 지배이데올로기 안에서의 비공식적인 반문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카니발이나 파르스(프랑스 희극의 한 유형)가 중세 교회의 엄숙함과 숨막힐 듯 한 구조된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균열이자 틈새라고 지적한다.³⁵⁾ 바로 이 기간만큼은 일시적인 출구이며, 모든 공식성을 파기시키는 시간인 것이다.³⁶⁾ 바흐친이 카니발에 주목한 것은 이 기간에 일어나는 자율적 행위나 표현의 분출이 곧 권력을 전복시키는 기저가 되기 때문이다. 중세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엄격한 제도와 규율이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다. 중세시대의 유일한 해방구였던 카니발은 70년대의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는 여공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며 학습되지 않는 가운데 표현된다는 것이며, 관광버스가 휴게소에 멈추거나, 행락 일정이 종료되면 모든 것은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광버스를 타기 전에 각

35) 미하일 바흐친(1965), p. 730.

36) 앞의 책, p. 731.

각의 경험과 생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이미 이러한 문화적 코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평소에 학습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이다.

2. 저항하는 신체

공동체나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이들은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수다를 통해 자매애를 형성하고,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하게 된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소통은 공통된 불만을 확인하게 되고, 권력의 부정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 노동자들의 담론을 형성하게 하여 정치적 행위로 결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뿐 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숙사 소모임 등을 통해 서서히 대항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하거나 여러 형태의 집단적 분노 표출이 일어나는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사건은 1978년 ‘동일방직 똥물사건’으로 이 당시의 상황은 석정남의 수기에 잘 나타나있다.

“벗고 있는 여자 몸엔 경찰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남자들은 못댄대” 하는 누군가의 다급한 음성은 서로 앞을 다투어 옷을 벗게 했다. 우리는 어느새 너나 할 것 없이 반 나체로 두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너무도 엄청난 돌발적인 폭력 앞에서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수치심도 두려움도 버린 돌발적인 행동이었다. 무장을 하고 방망이를 찬 기동대원들과 회사측 남자들이 의하여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알몸으로 뽕뽕 똥쳤다”³⁷⁾

‘동일방직 똥물사건’은 전국섬유노조 동일방직지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투쟁으로 경찰과 대치하는 극도의 첨예한 상황에서 마지막 저항의 수단으로 옷을 벗어 저항한 사건이다. 이들의 나체는 관광버스 안에서 춤을 추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관광버스 안에서의 해체와 자유는 권력이 부여하는 기간 안에서 행해졌다가 종료되지만, 여공들의 나체시위는 스스로

37) 이정희(2003), pp. 174-175.

의 자존감을 부상하기 위한 자발적 행위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육체가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해 “육체는 세계를 획득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며, 육체는 삶의 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연결되거나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은 특수한 행위에 연결됨으로써 지각의 구조에 접목된다”라고 언급하는 것에서 신체성이 갖는 그 의미를 역설한 바 있다. 여공들은 별거벗은 육체를 전시시킴으로써 공공의 의견을 대변하고, 소외받았던 자신들의 신체를 정치적 신체로 전환한 것이다.

‘동일방직 똥물사건’이 지금까지 신화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유는 여성들의 알몸을 드러내면서까지 처절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했지만,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투입되어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회사 남성 노동자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이들에게 똥물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여공들 대부분은 해고를 당했지만, 기계처럼 훈육된 일상의 신체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신체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여 전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일탈적 움직임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V. 나가는 글

본 연구는 급격한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의 신체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가사노동자에서 산업화 노동자로 전환되는 1970년대에 주목하여 경공업 여성 노동자의 신체 움직임을 살펴 보았다.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 움직임은 ‘반복성’과 ‘일탈성’이란 두 가지 특징으로 집약된다. ‘반복적 움직임’은 ‘훈육된 신체’와 ‘경쟁적인 신체’, ‘소외된 신체’에서 발견되며, ‘일탈적인 움직임’은 ‘해체된 신체’와 ‘저항적 신체’에서 확인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훈육된 신체’는 기계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규율화 되었으며, 이러한 신체 반복 훈련은 기계가 연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거나 이름 대신에 번호로 호

명되는 것은 자율성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었다. ‘경쟁적 신체’는 최대의 작업 효율을 위해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여공들 간의 충성경쟁과 내부 균열 효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특히 경쟁의 보상으로 신분계급을 상승시킴으로써 여공들의 신체는 더욱더 훈육되며 권력에 복종하게 되었다. ‘소외된 신체’는 까다로운 입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신분을 위조하거나 신장조건을 조작하는 것을 통해 여공들의 자존감이 상실되는 것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작업의 장시간 노동의 효율성을 위해 섹슈얼리티가 제거된 작업복을 입음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제어된다. 이들을 지칭하는 ‘공순이’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움직임 일을 하는 가난과 무식의 표상을 의미하며, 이들은 지역 공동체에서도 배제된다. 결국 여공들의 신체는 반복적 움직임이 강요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면서 주체성이 박탈되는 것이다.

일탈적인 움직임 확인할 수 있는 ‘해체된 신체’는 여가시간에 듣는 라디오를 통해 고달픈 타지생활의 위로를 받으며 이뤄진다. 특히 해체된 신체가 가장 극대화되는 때는 회사 야유회를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여공들이 최대한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음주가무를 즐기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체는 반복화된 일상적인 몸을 해체시킨다. ‘저항적 신체’는 시위과정에 나체로 몸을 전시시킴으로써 담론의 발화의 기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1970년대 경공업 여성 노동자를 ‘신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여공들의 신체를 통해 산업화, 도시화되는 사회적 상황과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역사를 미시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으로 신체 움직임 연구에 접근하고, 신체성이라는 독특한 텍스트를 통해 다층적인 독해를 시도함으로써 예술 장르간, 학제간의 소통을 매개하여 학술적 연구 지평을 넓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 문화적 담론을 구성하는 여러 시각을 학문적 소통을 통해 결론을 도출 방법으로 각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보다 다양한 연구 주제를 확보하고,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상적 공간에서 구성하는 몸

은 움직임 속에서 사회, 정치, 역사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기호화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열린 주제로 제공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작업이 무용예술의 대중화에 다가서는 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 가야트리 스피박 외(2010).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역). 서울: 그린비. 2013.
- 김원(2006). 『여공1970』. 서울: 이매진.
- 미셸푸코(1975).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오생근(역). 서울: 나남. 2003.
- 미하일 바흐진(1965).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 최건영(역). 서울: 아카넷. 2001.
- 이종구 외(2006).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서울: 한울.
- 이옥지(2001).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서울: 한울.
- 유정숙 외9(2011). 『나, 여성 노동자』. 서울: 그린비.
- 김원(2004). 1970년대 '여공'의 문화: 민주노조 사업장의 기숙사와 소모임 문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4: 101-148.
- 이정희(2003). 훈육되는 몸, 저항하는 몸. 『페미니즘 연구』, 3: 157-181.
- 송은영(2011).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회』, 32: 187-226.
- 이옥순(1990.3.3). 나 이제 주인이되어. 『경향신문』, 제 10면.
- Sonminjung(2006). Regulating negotiating in t'ûrot'û, a korean popular song style. *Asian Music*, 37(1): pp. 51-74.
- 이윤철(2005.5.14). 이윤철 TV 속 이야기 -추억의 댄스, 『MBC』.

논문투고일	2013년	6월	15일
심사일		6월	27일
심사완료일		7월	5일

Abstract

Corporeality of Female Workers Who Worked for Light Industry in the 1970's

JooHee Kim

Ph.D. of Dance Sunkyunwan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body discourse's sociocultural ideology through corporeality of female workers who worked for light industry in the 1970s. Repeatability and deviance are characteristic movement of light industry female worker's bodies.

Corporeality in repeatability movement is firstly disciplined bodies. When we read essays of women workers, we easily understand their disciplined bodies on working process, for example, exercising of their fingers, knees etc for running working machine.

Second is competition bodies with other workers. To getting paid for competition with other female workers, from time to time, different color of clothes are reward of their working grade. In company women workers are compelled in one color uniforms.

Third is neglected bodies. Industrialized women workers's working place need disappeared sexuality of female workers's bodies for working efficiency. Nevertheless women workers expanded autonomy and solidarity in their company's dormitory and shared consciousness through excluding their bodies sexuality.

Women worker's corporeality, deviance movement has been expressed in factory's picnic bus. In small picnic bus they showed their disaggregated bodies thorough acting of dancing, singing, drinking are only escape road to themselves.

Sometimes women workers's body movement turned into political bodies. For example, occasionally when female workers went on a hunger strike for better treatment, they undressed their clothes in front of police line.

keywords: corporeality(신체성), light industry female worker's body(경공업 여성 노동자의 몸), repeatability(반복성), deviance(일탈성), kwan kwang bus dance (관광버스 춤)